

CDP Global 500 Report 2011 SUMMARY REPORT

- Accelerating Low Carbon Growth

Date, 2011, 9, 26,

오늘날 저탄소 성장은 단순히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뿐만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의 주주가치 실현과 최근 벌어지고 있는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로써 널리 인정받고 있다. 탄소정보프로젝트(the Carbon Disclosure Project, CDP)는 저탄소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71조 달러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는 전세계 551개의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Global 500 기업에 기후변화 관련 정보를 요청하였으며, 이 가운데 81%의 기업이 설문에 응답하였다.

CDP Global 500 Report 2011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지난 2003년 프로젝트를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절반이 넘는 기업들이 기후변화이슈를 기업의 핵심 전략에 반영하고 있다고 보고했다는 것이다. PwC는 이를, 에너지 효율성 향상과 기업의 수익 사이의 긍정적 관계를 인식하고 있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396개의 글로벌 기업 가운데, 작년보다 20%가 증가한 68%의 기업이 기후변화를 핵심 전략에 반영하고 있으며, 45%의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을 달성하였다고 한다.

또한, 이번 보고서는 기업의 기후변화대응(CDP 탄소 성과 리더십 지수(CPLI), CDP 탄소 공개 리더십 지수(CDLI))과 기업 가치와의 상관관계도 조사, 보고하였다. 2005년 1월부터 2011년 5월 사이 Global 500 기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기업의 탄소정보를 투자자에 적극 제공한 기업이 Global 500 평균보다 두 배 가량 높은 투자성과 (total return : 투자에서 얻은 배당금 또는 자본이득과 이자수입의 총계)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폴 심슨(Paul Simpson) CDP 대표는 "기후변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기업이 재무적으로도 더욱 우수한 성과를 가져온다는 이번 결과는 기업들이 왜 온실가스 관리 및 감축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지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기업들은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후변화 대응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표 1〉Global 500, CDLI & CDPL 2011 투자성과(%) 비교

	Global 500	CDLI	CPLI
투자성과 (US\$)	42.71%	82.44%	85 72%
(2005.01-2011.05)		02.44 /0	OJ.72 70

Source data: Bloomberg

CDP 글로벌 500 보고서 주요 결과 (Key findings)

- 2005년 5월부터 2011년 3월까지 글로벌 500기업의 투자성과를 분석한 결과, 2011 CDP의 CDLI와 CPLI에 포함된 기업의 투자성과가 그렇지 못한 기업보다 두 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응답기업 가운데 74%(294개사)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2010년의 경우 65%(250개사))
- **68% (269개사)의 기업이 기후변화이슈를 기업의 핵심전략에 반영.** (2010년의 경우 48%(187개사))
- 93%(368개사)의 기업이 이사회 및 고위 임원급 이상수준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리고 있으며(2010년의 경우 85%), 이는 기후변화가 더욱 중요한 경영 이슈가 되고 있음을 시사.
- 64%(259개사)의 응답기업이 임직원에게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금전적 보상 제시. (2010년의 경우 49%(188개사)).
- 97%(384개사)의 응답기업이 총 1,780가지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 보고.
- 응답기업의 37%가 온실가스 정보를 CDP에서 인정하는 기준에 따라 검증 받음.
- 유틸리티 섹터: 가장 높은 성과를 보임 (Band B)
- 통신 섹터: CPLI 에 포함된 기업 없음.
- 에너지 섹터 :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한 기업수가 가장 적고,(55%). CDLI 및 CPLI에 포함된 기업이 평균보다 적음.
- 호주,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 영국의 기업들이 가장 높은 기후변화 성과를 보임. 반면 캐나다, 일본, 미국의 기업은 평균보다 낮은 성과를 나타냄. 〈끝〉.

작성자 : 김태한 연구원 (Dir. 02-738-1153) thkim@kosif.org